

# ‘두 쪽’ 평화당 기사움...중립과 거취 촉각

〈조배숙·황주홍·김광수〉

“탈당, 명분없이 실패” vs “개가 짊어도 기차는 간다”

‘정당 보조금 지급’ 관련 “동지애” “기회준 것” 시작차

민주평화당 대규모 탈당 사태 후 첫날인 13일 평화당과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서로를 향해 날선 각을 세웠다. 당권파와 중립파 의원들이 남은 평화당은 탈당파를 겨냥해 ‘명분이 없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대안정치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탈당 명분은 없다’고 응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탈당 의원들에 대해 “명분이 없어 민심이 합류하지 않는다”며 “이미 탈당파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탈당에 명분이 있었다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겠지만, 인터넷의 (탈당 기사 관련) 댓글을 보면 칭찬 글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당 후 첫 대안정치 회의에서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그동안 (평화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대국기부대’ 보다는 못한 지지를 받았다”며 “이보다 더한 명분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변화와 개혁에는 항상 우려와 비판이 따르지만, 개가 짊어도 기차는 달리기야 한다”며 “이미 정계개편

의 거대한 흐름은 시작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에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안정치는 앞으로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당창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새 인물 영입에 집중하며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서류상 탈당 일을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14일) 뒤인 16일로 미뤄 평화당이 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을 두고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탈당파의 ‘마지막 동지애’라고 평가한 반면, 유 대표는 정 대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정 대표는 “탈당하면서 우물물에 침뱉는 경우도 있지만, (대안정치는) 정반대로 정당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선의와 마지막 동지애를 보여줬다”며 “화답으로 오늘 이후 비난과 비판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남은 당직자 인건비나 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16일 탈당한다”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으로, 16일 이전이라도 생각을 바꿔 새로운 길로 함께 나서 달라”고 했다.

당에 남은 중립과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3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측은 중립파 의원들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 각각 기대하면서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대안정치회의의 주재하는 유성엽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비상한 각으로 경제상황 대처”

국무회의의 주재...“허위정보로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해야”

“생활 SOC 투자,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 추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으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찌거기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정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노는 등 고용 안정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당정청 日수출규제대책위

“제도 개선 신속 추진할 관제탑 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 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과 해결을 위해서는 흠어진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대책위는 각 단위와 관련 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

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당정청간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끌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초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 시의회,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추진

오늘 日대사관서 규탄 기자회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수의계약과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 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 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

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의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전범 기업의 제품을 실택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에도 수의계약 제한과 제품 표시를 권장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할 예정이다.

부산, 울산, 경북시의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수의계약, 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과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다이지자

## 서삼석, ‘도서지역 가뭄 대응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전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가뭄으로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에향** 에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에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http://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상담문의 및 접수를 서두르십시오!**  
**카드발급 4주이상 소요!!**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냉동공조유지관리**

취득가능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5 ~ 2020. 03. 20(6개월)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양식조리기능사(미론+실기)**

취득가능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3 ~ 2019. 11. 22(2개월)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